

복구,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 개시

광주 복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13일부터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설죽로 477, 삼각동)에서 지역 명소 관광과 문화예술 체험을 접목한 '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개시한다.

지역 방문객에게 복구 대표 관광지를 소개하고 음식·문화예술을 소재로 오감을 자극하는 즐길 거리를 제공해 복구 특화 체험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맛있는 아트 피크닉 ▲복구 아트 버스 등 2개 프로그램

으로 구성됐다.

먼저 '맛있는 아트 피크닉'은 지역 역사와 아시아 도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립광주박물관과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이 모여있는 중외공원을 둘러보고 신선한 제철 지역 식자재로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되는 맛있는 아트 피크닉 상반기 운영은 오는 13일부터 6월 8일까지이고 하반기는 9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로 해당 기간 중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회당 15명을 대상으로 총 11회 제공될 예정이다.

'복구 아트 버스'는 송정역, 유스퀘어 터미널 등 광주의 주요 관문과 복구의 대표 명소를 잇는 복구 투어 프로그램으로 상반기에는 '민주화운동' 주제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전문해설사와 함께 방문해보는 '오월 버스'가 5회 운영되고 하반기에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테마로 전시관을 관람해보는 '비엔날레 버

스'가 6회 진행된다.

오월 버스 운영은 20일부터 6월 22일까지이고 비엔날레 버스는 9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운영 기간 중 지정된 토요일에 회당 20명 대상으로 격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참여 방법은 프로그램 신청 구글 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누리집과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블로그에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성 기자

남구, 신재생 에너지 참여기업 모집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내년도 30억원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남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공모를 진행함에 따라 구청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사업 제안서를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업체는 지난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시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모니터링 업체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원격단말장치(RTU) 제조업체에 한한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기업은 사업 제안서와 PPT 발표 책자, 각종 증빙자료를 오는 18일 오후 4시까지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사업비 30억 가량을 투입해 관내 전역의 주택과 상가,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250곳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광 설비도 4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선정은 오는 22일 예정인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계약 및 비계약 평가 점수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자격은 태양광 설치를 주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태양열 설치와 모니터링, 설계·감리까지 담당하는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남구는 컨소시엄 참여기업 확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공개 및 심층·총괄평가를 실시한 뒤 10월쯤에 사업 대상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희태 기자

광산구, 민방위 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방위 교육은 1~2년 차 대원 대상 4시간의 집합교육이 지난해 3년 만에 재개됐다. 또 3~4년 차 대원은 2시간 사이버교육, 5년 차 이상 대원은 1시간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이런 체계로 구 소속 모든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민방위 교육을 진행한다. △4월 11일~7월 12일 △8월 12일~9월 27일 △10월 21일~12월 6일 등 총 3회에 걸쳐 시행한다.

집합교육은 해당 대원에게 일차, 장소 등을 포함한 전자 통지를 발송해 참여를 독려한다. 사이버교육은 정해진 기간 내 24시간 언제든지 PC나 스마트폰으로 민방위교육 홈페이지(www.cdec.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쳐 받으면 된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화재 안전, 응급처치 등 민방위대원이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집합교육은 기본교육과 실습 훈련으로 이뤄지고, 사이버교육은 교육 동영상을 끝까지 본 뒤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득점해야 교육이 완료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시민안전과(062-960-3982)로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12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동구청 제공

동구, '광주문화유산야행' 참여 시민 모집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광주문화유산야행'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12일부터 2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유산야행'은 이달 26~27일 양일간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사전 접수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코스형 주제 체험인 '동구 의병양성소' ▲이머시브 연극 '동인(東人)' ▲미니 퍼레이드

'꼬마 의병단' ▲'어린이 문화유산 해설사 투어' 등 4가지이다.

이외에도 체험·공연·전시 등 일제강점기 광주를 배경으로 지역의 문화유산과 그 시대를 살았던 의병, 동구의 인물, 독립운동 학생 등을 조명하는 8야(夜) 테마 28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광주문화유산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2-608-2403) 또는 동구 문화유산 활용사업 사무국(062-608-2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고 동구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야간 경관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서구, AI 활용 복지사각지대 초기상담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서구는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선정돼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범위 확대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및 복지지원 업무에 집중해 위기가구에 신속한 적기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화내용, 상담결과 등 AI 초기상담 결과는 복지전담관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달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AI 초기상담은 위기정보 입수 1인 가구 및 소재미확인 대상자 등 6000여 가구에 문자 발송과 함께 사전 안내를 진행한 후 대화형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자동전화시스템으로 ▲본인확인과 위기상황 파악 ▲육구상황 파악 ▲심층상담 여부 확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서구는 AI활용 초기상담 시스템 운영 시범 지자체로서 추후 전국 운영을 대비한 멘토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위기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대상자에 대한 심층 상담에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서비스 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공정과 상식